SMC, 공급과잉에 수요정체까지

한화 국내시판으로 과열경쟁 우려 … 제일모직도 참여 예정

국내 SMC 시장이 만성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96년 한화종합화학이 국내시판을 본격화함에 따라 평균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과열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UBR사업 진출을 계획중인 제일모직이 97년상반기 SMC 생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국내 SMC 생산 2만9000톤 중 자체소비분을 제외한 판매규모는 1만톤으로 LG화학과 미원이 각각 5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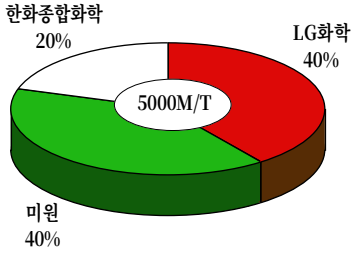
SMC 생산기업 현황

(단위: M/T)

기 업 명	생산능력	기술도입선	UPE구매처	G/F 구매처	생 산 량		
					1993	1994	1995
LG화학	30 000	일본DIC	애 경	LG오웬스	17 000	20 000	20 000
한화종합화학	12 000	일본Hoxan	애경·건설화학	니또보·LG오웬스	2 000	3 500	3 500
미 원	10 000	일본촉매	자 체	LG오웬스	1 000	2 500	2 500
동양FRP	4 000	무쓰미야	애 경	〃	1 400	2 000	2 000
강남정공	8 000	쇼와고분자	건설화학	〃	-	500	500
기 타	1 500	-	-	-	-	1 000	500
합 계	65 500	-	-	-	21 400	29 500	29 000

그러나 96년들어 SMC 전량을 자체소비, 조립식욕조(SBR) 제조에 사용해오던 한화종합화학이 국내판매를 시작함에 따라 96년8월 현재 LG화학 40%, 미원 40%, 한화종합화학 2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화종합화학이 향후 시장점유율을 30 35%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96년 SMC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 제일모직이 SMC를 본격 생산할 경우 삼성건설의 SMC 수요중 약150억원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규모가 축소, 가격 및 품질을 둘러싼 시장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SMC 생산능력은 LG화학 3만톤, 한화종합화학 1만2000톤, 미원 1만톤, 동양FRP 4000톤, 강남정공 8000톤, 기타 1500톤 등 6만5500톤에 달하고 있다.

SMC 시장점유율(1996. 상반기)



반면, 95년 생산량은 각각 2만톤, 3500톤, 2500톤, 2000톤, 500톤, 500톤 등 2만9000톤에 불과,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SMC시장이 수요규모와는 달리 과잉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주 수요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UBR시장이 96년들어 미분양 아파트의 속출 등 건설경기 침체됨에 따라 수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환경문제와 관련 PE, PP 등과 달리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타 원료에 비해 수요증가폭이 적어 시장규모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도 가동률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96년들어 삼익건설, 유원건설, 우성건설의 부도에 이어 건영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UBR 생산기업들이 97년 생산량 감축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SMC의 수요변화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내 SMC 가격은 Color, 광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범용이 Kg당 평균 1500원 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구성비는 UBR 등 건축자재용 2만2800톤(80.0%), 산업 · 수송자재용 및 자동차 부품용 15%, 전기 · 전자 등 기타 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0%의 수요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UBR시장이 시장확대 기대와는 달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정체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 · 수송용 자재부문의 신규수요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6/10/21>